

## 1. 자기소개

안녕! 나는 디학 7기 영빈이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앞으로 작가로 활동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 2. 컨셉

나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제삼자로 바라보고 싶었어. 그래서 쓰게 된 내 글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고 연극이랑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다가 관객들이 소극적이게나마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연극의 안쪽, 바깥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어.





그녀는 누워있었다. 포근한 이ଞ이 무겁고 차갑게 뿜어내는 바람에 그 두께마저 따스 생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일 것이다 웃가지와 물건들의 정리를 최소한으로 끝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스마트폰과 티 무렵, 쌓여있던 일상의 무게에서 겨우 해!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생각났다. (뭐해) 리 그녀는 이제서야 보았다. 그리고 (누워있다 아무렇게나 둔 채 다시 몸을 대 자로 했다. 생각할수록 묘했다. 주어 따위 생략한 에너지만을 소모해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이 현재의 상태―그녀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를 생각해서 남겼다는 일말의 미안함, 다 알아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울린 (키

이곳에서 좋은 선후임도 많이 만났으며 지금도 자주 연락을 지내며 어려울때마다 서로 자주 돕는다.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웠고 잠념이 없었던 시절도 이때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이때의 시절은 지금도 내 생에 매우 손꼽히는 낭만의 시절이다. 내가 사진 취미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이 시기때 내가 그 해 한참 비가 왔던 어느 날이었다. 어두컴컴한 벙커에서 하루종일 통신장비만 바라보다 비가 심상치 않게 많이와서 모든 활동들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경험상 조만간 큰게 다가옴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부대 전체가 배수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급양병들도 열외 없이 전 부대원이 모두 투입되어 막힌 배수로들을 뚫었다. 내 몸에 흐르는 것이 땀인지 비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육체노동을 했다. 전투복도 점점 흙에 뒤덮혀져 갔다. 그리고 다른 방공부대랑 교대로 적의 상황을 감시하는 방공 감시체 감시를 위해 밤을 세워줘야 한다. 하필이민 무조건 상급부대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기 우여곡절 끝에 거칠고 힘들었던 배수. 어느새 슬슬 그쳤다. 그때가 아마 저녁을 ! 선역을 앞둔 병장 기억한다. 우리가 근무했던 벙커 위에는 한 

그런방식아주좋은쪽으로생각중이라는데하면안되지만말씀하신그런루 트로계속해서당겨봐생각해버러지같은노릇하니까더너무무겁게우울해 지는거야이겨봐야지생각하는진정한전달길을조금틀려낭만적이어야돼 지금도봐어젯밤에도봐네가그모호함의저런일을당해과도한해석도싼사 람이라그나뭇잎에이런일이일영원한꽃피어난게아니아무것도몰라녜가 그런일을강아지풀도일어나게플래시백과가만히둔거칭송받는다잖아가 총을 쏜*다.* 만히두면만두가좋아안되지일외부에서벌어나지않게창조하는속끔막아 첫 발은 주둥이에 쏜다. 야지그리수제비반죽고너보단시간적차원걔가잘못한글을쓸때일거야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도. 친새끼지손이꽁꽁꽁그렇게하다양한공간는게근데그은밀한경외상황을 이가 깨지고 목젖이 뭉개지고 네가너라담배와섹스서벌어진대답하지않일이라고생수있는지발각하면 네치 혀가 파편처럼 튀길 때 까지 그게어떻도넛과커핀게되겠어알아들었지 ? 너는너무참여했어요자기를 그 다음엔 팔에 쏜다. 비관해하화장실휴지지마네가작품들중에얼마나소중진짜나를구한데거 그 다음엔 다리에 쏜다. 울을들여너의향기는다봐봐자알코올없이기한톄좋은거짓말이라말좀해 총알은 셀 수 없이 많다. 줘그리고깨끗한비누그일은이진짜심한멀미일어난거접근하는거니까잊 어버려지정글속의새난일은잊내가그걸수어버려야스며들때까지트레스 그래도 걸어다닌다. 를안받아노래하는범아무데나때는확실히말하고다녀결코모르게말안하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인 것 같이 웃는 표정이 얼핏 고꽁꽁감검은하늘멈춰두면너넘침으로써안에서무거소박한형태워져서 자꾸니마별똥별의소음만짓눌이비롯된다릴걸?아무인식하는정데나다 앞네가 죄다 깨졌어도 달싹이는 주둥아리. 말하고다웃음나는지녀야깃털남은생각이처럼가벼워고전적느낌지지생 샌 발음으로 내는 멍청한 소리. 각해봐별옥수수한알일아냐사진지하게계실사람이태평한아침일어나서 걸어다닌다. 케첩을 나른다. 휴지를 나른다. 죽고사는널보고싶은데의미가공동체특징있어 ? 아무나원하는것의미도 온 몸에 구멍이 났어도 웃음 소리를 낸다. 없어그냥잘지내나요숨쉬고먹마치그가업고싸다가망태기쓴사람가지면 죽어서홑튼튼하게지어지는거홀가분해져야너무깊게벗어난거란생각할 필요 없어언제까지나알겠지 ? 자동차위로그래그럼당늘너에게연연하지 이제나가서서러운여자"



## 3. 작업 이야기

친구들의 글마다 색다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작업 과정이 참 어려웠지만, 동시에 독자가 흥미롭게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



##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최선을 다해서 만든 첫 책이라 전시에 오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게 된다면 너무 좋겠고 이진우 선생님과 김의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일과 병행하느라 고생한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말하고싶어.